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10월 발행 (제 66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자신의 눈으로 보다' 예레미야

◎간증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것'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자신의 눈으로 보다' 예레미야

누가복음 12: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12: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번에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없으면 이상한 흑색 선전 교리를 잡아 버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시작 부분의 텍스트에서 군중에 대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땅과 하늘의 현상을 말할 것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를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그 시대 대부분의 접힌 시대는 실제로 어떤 시대였다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에서 관리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눈, 주 예수의 눈에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시대는 악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단자 죄인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 저지른 죄에 대해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가 타 올라 그 분노 속에서 기원 70 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손에 전달되고 이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홀로 남기지 않고 생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주 예수의 접힌 시대는 나쁜 시대이며, 죄가 증가 더해져 하나님 앞에 악한 시대가 되어,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인가라는 비뚤어진 시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당시의 군중은 그 것에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대가 악하다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는 것도 전혀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세대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시대에 쏠리는 등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선자 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현상을 말할 것을 알면서도 왜 지금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까?"며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이 시대의 상황과 군중의 깨달음과 이해와는 달랐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시대 이해와 오해와 관계하고 주님은 "또한 왜 자신에서 진행 (KJV : 자신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군중이 스스로 그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도자 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했다, 그것은 따라서 제대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자신이 그 시대를 분별할 수없이 달콤한 말과 축복과 은혜를 군중에게 말하고 있어, 반대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 등 결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하여 실제와 다른 시대 이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의 오류와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할 모든 판단을 다른 지도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주로 지적하시는 까닭 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장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장님 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14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런데 이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그러므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은 성경은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6: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목사 : 배교는 진행중이다

이사야 6: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에서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 되돌아 치유 될 수 없는데."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군중도 만약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마음에 깨닫는다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치유되도록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리새인 등 지도자 달콤한 말, 말 그대로 받아들인 올바른 자신의 상태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 것도 결과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경험하지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판단하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자신의 귀로 듣는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는 등의 표현의 이면에는 실수 지도자, 실수 리더, 눈먼 지도자 존재가 자신의 판단과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군중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 된 하나님은 이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교회 지도자의 말에서도 음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없다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중요한 판단을 지도자에게 맡겼다 위해 영원한 생명을 잃는 오류에 들어갈 예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묻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상을 활발히 경배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정진되어야 기도를 마리아에게 바쳐 기독교인지 마리아 교회인지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시골 여자에 불과했다 마리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성모 승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 주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그 이상한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성경과 동떨어진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요? 그 이유는 그들이 카톨릭 로마 교황을 비롯한 지도자가 말하는 이상한 교리 요타 이야기를 통채로 삼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은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기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하지 않는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노력한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결코 마리아는 특별한 위치를 두지 않은 것을 발견 할 것이다. 마리아가 원죄 인 승천 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구속 주이며, 같은 성경은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은 그 이단 교단 위치 타워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반복, 반복, 파수대 자신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배움을받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라 변조 된 성경 신세계 역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교리를 반복 주입됩니다. 말하자면 세뇌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도 바뀐 보람의하지 않는 金太郎飴 같은 동일한 논법에서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하고있다"고 말했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 중 하나로서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보고 자신의 귀로 하나님에게서들은 교리 등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자신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자신 귀에서 하나님을 들으려고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이단 교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신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신교 사람들도 같은 실수에 들어가 성경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잘못된 교리에 몰래 동일한 오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사람들도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와 목사, 교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몇 가지 오류의 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의 중요한 것으로는 소위 환난 전 휴거 설, 두 단계 휴거 설입니다.

이 가르침은 환난 전에 그리스도가 와서 휴거 해 주시는 환난을 보지 않는다는 상당히 머리 투성이 교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 교리의 모순에 매우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는 것을 반복 말했다 것을 알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4:21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4: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마태 복음 24 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은 "환난은 온다, 그 전에 꼽히는 '등은 결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만날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환난에 견디는 것을 언급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눈 '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환난 전에 꼽힌다 등의 교리는 완전히 비 성경적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대 현대는 어떤 시대인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주님은 그 시대의 군중에게 **"왜 지금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즉 당시 군중들의 시대 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영적 인식은 잘못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작렬하는가하는 심각한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근심도 회개도 없었다, 그렇지 알려져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시대를 분별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또한 죄를 거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 해갔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님은 또한 **"또한 왜 자신에서 진행 (KJV : 자신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균중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말하는 おためごかしの 말씀과 달콤한 청중받은 같은 메시지를 통채로 삼켜,이 시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이 상상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시대를 제대로 분별있는 것일까 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도 많아지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영입 교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은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신 한 아기의 낙태를 옳다고 하는 교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죽일 말라, 라는 말도 소홀히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바로 교회가 소동과 이집트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부어 것인가라는 시대에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교회가 심판받을 때가 그리스도인이 심판받을 때가 등과 걱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 교사의 말을 맹신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고하지 않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교사의 종말 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의 눈으로 시대를 판단한다면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시대이다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4: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부분을 통해 언급 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행 날, 축복의 날이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대해 땅에 대해 세상의 논리에 따라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태아의 낙태에 동참 할 땅에 세우는 기독교에 있어, 그 재림의 날은 슬픔의 날,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신부로 영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영입되는 똑똑한 딸과 함께 받아 들일 수 없는 바보 같은 딸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마태 복음 25 장 1 절 ~ 13 절) 재림의 날에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종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자신의 귀로 성령의 말씀을 알아 듣지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알아 봅시다 .



똑똑한 딸 바보 딸

자신의 눈으로 보다 예레미야

이번에도 토요일 제자 모임의 추천으로 배운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라면 은근히들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 렘넌트 교회에 가기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와는 관계가없는 것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메시지 나 토요일의 추천을 통해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소 관계가 있고, 알아 두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 해 주셨으면합니다. 만약 조금 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말씀 을보기 전에 조금 이야기 를하자. 구약의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는 신약의 교회에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즉 반복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움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통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도 있는 것처럼 "Back to thefuture"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로 돌아 가기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보고 싶은 경우는 반대로 과거로 돌아 구약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아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12 지파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하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 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서도 말할 수있는 것은?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도 북쪽 이스라엘, 즉 가톨릭과 남쪽의 유다, 즉 개신교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 르호보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카톨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 재앙은 여로보암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 르호보암도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톨릭의 많은

백성의 시작이 여로보암에서 개신교의 많은 백성의 시작이 르호보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 르호보암 때에 그리스도 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을 살펴 가톨릭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에 따라 여로보암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싶습니다. 성경 구절은 II 역대 11 장입니다.

역대하 11:5 ○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은 뜻의 중심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정통 후에 있습니다. 왕 이신 그리스도의 정통 계승자 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에는 뜻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이 말은 개신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11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식량, 기름, 포도주"는 말씀의 빵과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 예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유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12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창"재갈 말씀이나 교리의 비유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마다 큰 방패와 창을 두어,이 도시를 더욱 공고히했다."는 교리 적으로도 강하게되었다는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11:13 ○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라는 말에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하면, 각 지파에게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레위 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나 신부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 이스라엘 (가톨릭)에도 레위 사람들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나오고 옆구리에 띄었다."는 목사 (신부)가 임명 땅을 버리고 개신교에 온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즉 천주교를 떠나 교회도 신자도 버리고 개신교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레위 인"은 "고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 뜻이 있습니다. 원점은 개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가 많은 가톨릭 있지만, 본래는 개신교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11:14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이 저희를 폐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기서 여로보암이 제멋대로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섬기게했다"고합니다 같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송아지"또는 "염소"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소"과 "염소"는 "기독교인"의 비유입니다. 즉 "송아지 섬기게했다"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말합니다. 가톨릭 명백한 특징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황과 테레사 수녀와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특별한 "송아지 숭배"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즉 가톨릭 문제점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어 II 역대 13 장을 배워 봅시다.

13:3 아비아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사십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팔십만으로 대진한지라

13:4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13: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수는 많아도 여로보암은 정통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쪽이 개신교에 비해 인원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혈육 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그리스도와의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6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게다가 여로보암은 솔로몬 (성령)에 반역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만든 나라는 성령에 반역하여 만들어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감안하고 말씀한다면 가톨릭에는 그다지 성령의 역사가없는 것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피를 흘리는 마리아가 그 예입니다.

13:8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주님의 왕국"은 남쪽의 유대 개신교 것입니다. 가톨릭은 개신교에 맞서 왕국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공격하거나 박살하기도합니다. 덧붙여서 역사적으로 가톨릭에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의 하나의 특징은 인원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이 세상에 붙어있는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생각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 & 그릇 숭배와 카톨릭은 뗄 수없는,이라고하는 것도 일면 사실입니다.

13:9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가톨릭 사제, 신부의 문제점은 "너희는 아론의 자손 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추방하고

열방을 모방 자신들을 위해 제사장을 임명했다"고 수 있도록 레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고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제사장은 레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제는 하나님에 섬기려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지옥은 없다"고 말했다면,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되는 것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도달하지 않은 가르침이 가톨릭의 특징입니다.

13:10 우리에게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개신교의 존재 가치는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로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13:11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에 반해 너희는 그분을 버리고."라고합니다 같이 카톨릭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고있었습니다만, "여로보암"를 통한 말씀에 대해 다소나마 이해하셨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랬 습니다만, 어쩌면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이 가톨릭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 합니다만,이 기술은 신약의 종말의 예언도 있으므로 참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 으시면 꼭 알아 주셨으면 해서요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를 흘리는 마리아 상